

고기질도 소비자 위주로...



이 순 남

(주부 · 강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18동 903호)

소비자는 영리하다.

한때는 호시절이 있었다. 그저 물건을 만들기만하면 만드는 족족 팔리던 시절이다. 값을 비싸게 붙이든 말든, 그 물건이 좋건 말건 물건만 싼고 공장문을 나서면 금방 돈으로 환산되어 회수되었다. 광고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먹이에 개미피듯 줄줄이 몰려와 서로가 더 사겠다고 난리였다. 개중에 물건이 마음에 들지않고 제 금어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감히 그것을 내놓고 말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래, 감히 어디라고 일개 아녀자 주제에, 장삼이사(張三李四) 꼴에 어디라고 큰회사 때문에 와서 대들수가 있는가? 그저 질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안사면 되지. 좀 뭐하게 말한다면 꼬우면 안사면 될거 아니야. 더러가 타부타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오금을 박았음직도 하다.

그러나 시절은 변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술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장의 숫자도 늘고 생산제품도 늘고 비슷한 회사끼리 경쟁을 해

야한다. 소비자가 왕이다. 만약 소비자의 눈밖에 나면 그 상품을 거들떠도 안본다. 그리고 소비자도 깨우치기 시작했다. 내 돈 주고 산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게 되었고 임비곰비논리적으로 따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소비자 보호운동을 펴게 되었다. 이제 소비자는 영리해졌다. 결코 옛날처럼 물건을 잘 못사면 그날의 운수 소관으로 돌리지는 않는다. 이 점이 중요하다

닭 뱃속에 든 기름 덩어리

얼마전 단지내의 정육점에서 닭한 마리를 샀다. 요즈음 정육점에는 질이 좋은 갖가지 고기가 지천이었다. 쇠고기도 부위별로 잘 썰어서 진열해 두었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한근, 두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램으로 파는 곳이 대부분이다. 「아저씨 좀 많이 주세요」

하던 시대도 지났다. 삼겹살 한줌만 더 올려도 저울은 귀신처럼 돈으로 환산해내고 만다. 옛날 시장에서야 비게 부분을 슬쩍 한칼 베어 올리기도 했지만 요즈음은 천만의 말씀이다. 그날 닭을 산 것은 아이들에게 삼계탕을 해주기 위해서였다. 참쌀넣고 인삼넣고, 대추를 두어쪽 넣고 고으면 몸보신을 한 것 같이 느껴지는 옛날의 이미지 때문이었다. 위생닭이라고 미리 잡아서 포장을 해준 닭을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 닭 뱃속에 아이들 주먹만한 기름덩어리가 2개나 들어 있었다. 글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을 위한 가혹한 배려일줄은 모르겠으되 종일 기분이 꺼림직 하였다. 닭도 그램으로 샀으니 결국 이 기름덩어리 값도 지불한 것이다. 속은 기분이었다.

나는 이것을 닭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랬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중간 유통과정에서 닭을 잡는 사람들이 슬쩍 끼워넣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작은 일들이 영리한 소비자의 외면을받을 요소들이다. 누구나 이런 기분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선듯 닭을 사게 되지 않을 것이다.

금년 여름엔 닭고기의 과잉생산으로 생산자들이 큰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업계 전체가 나서서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여도 부족한판에 이런 알팍한 상술로 소비촉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만은 없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닭고기 말고도 돼지고기 쇠고기가 얼마든지 있고 소비자는 마음대로 고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게 소비자 위주로 이루어져야하리라고 본다. 고기 질 까지도 말이다